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건강과 질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어디에서든 손쉽게 정보는 구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올바른 의학정보를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내 손안에 진료실'을 통해 집에서 편하게 정확한 의학정보를 받아 궁금증을 풀어보자.

1년 6개월 동안 웨이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기구를 잡고 들 때 통증이 있고 평상시에도 통증 부위를 누르면 아픕니다.

팔꿈치 바깥쪽의 통증은 주관절 외상과염증이 흔한 원인입니다. 근육의 반복적 사용과 무리한 사용이 근육 부착부의 염증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상기 근육의 휴식을 주는 방법과 경우에 따라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복용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통증이 오는 경우 1~2회에 한해 스테로이드 주사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분에서 만성화로 진행되는 경우, 부착부의 변성된 염증조직을 제거해주는 수술까지 시행하기도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박상은 교수
문의 : 042-220-9530

얼마 전 머리에 충격을 받은 후부터 오른쪽 눈에 아지랑이가 생겼다 사라졌다하는 비문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안구 뒤편은 유리체(초자체)라는 조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유리체는 안구의 안쪽 벽에 붙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액화 과정(액체로 변화)을 겪으며 안구 내벽에서 유리체가 떨어지면서 부유물이 발생해 비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았다면 치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 비문증으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과잉 진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망막에 열공이 동반된 비문증이라면 레이저 혹은 수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 합병증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안과 강승범 교수
문의 : 042-220-9590

아이 출산 후 뛰면 아랫배가 이상하고, 바로 누워 자는 것도 힘들어 병원을 찾았는데 자궁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문의하신 증상은 자궁질탈출증의 증상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산일 경우, 연령이 증가할 경우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으로 바로 누워 자는 것도 힘들 정도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령이라면 페사리(Pessary)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궁 거상술 및 질벽성형술을 통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산부인과 정인철 교수
문의 : 042-220-9550

최근 건강검진에서 '췌관 내 유두상 점액성종양'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췌관 내 유두상 점액종양은 주췌관형, 분지췌관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췌관형과 혼합형은 악성 위험도가 높아 수술적 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악성화 동반이 낮은 분지췌관형에서는 악성 위험인자들을 결정하여 병변절제나 추적 관찰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직까지 췌장의 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률이 다른 소화기계(위암, 대장암 등)에 비해 높은 편이고 대부분 노령에서 발생하므로 치료 방침의 결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검사하신 자료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박원석 교수
문의 : 042-220-9820

62세 여성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집 현관문 번호도 잊어버리고 친구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치매일까 걱정이 됩니다.

나이와 현재의 증상을 놓고 볼 때 치매보다는 건망증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서 집중을 잘 못하고 건망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검사는 기억력 검사를 비롯한 인지기능 검사와 뇌영상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각각 30분 정도이며 결과는 검사 후 곧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효진 교수
문의 : 042-220-9020

동네 안과에서 남편(34세)이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리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백내장은 안구 내의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즉,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수정체 혼탁은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나듯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외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백내장은 경과를 지켜봅니다. 진행을 좀 더 천천히 시키고자 한다면 백내장 예방 안약을 넣기도 합니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고 강한 자외선 빛을 차단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안과 노창래 교수
문의 : 042-220-9590